“세계유산 山寺, 복합문화유산 가치 가져”

등재추진위, 11월 27 · 29일 기념식 · 학술세미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함께 세계유산 산사 보존 다짐해

세미나선 ‘통합관리단’ 제안 모니터링 · 정기보고 등 역할 유산 홍보 · 연구도 추진돼야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지난 여름 통도사 · 부석사 · 봉정사 · 법주사 · 마곡사 · 선암사 · 대흥사 등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불교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축하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27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기념식’을 열고, 우리나라 13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산지승원의 가치를 재차 조명했다.

산지승원은 지난 6월 바레인서 열린 제42차 세계유산회의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당시 세계유산위원회는 7개 사찰에 대해 △7~9세기에 걸쳐 창건돼 현재까지 지속되는 종교적 수행의 중심지를 대표 △다양한 종파들과 역사적인 관련성 △주목할 만한 많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물 △한국불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 등을 인정해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산지승원 세계유산 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공로자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산사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기념사에서 “산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조계종은 이미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1700년 간 이어온 한국 승원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11월 27일 열린 등재 기념식에서 세계유산 인증서를 원행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이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에게, 도종환 문체부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어 원행 스님과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산지승원 7개 사찰과 각 지자체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세계유산의 등재를 선포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은 등재사를 통해 “산지승원 사찰들은 지난 140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 정진한 스님들과 국민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량”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산지승원의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현재 환경보존만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공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호영 회장은 “산사의 세계유산 등재는 복합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원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전반적인 정책들이 재조정되고 적합한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29일 열린 등재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사찰, 종단,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산사 통합관리단’을 통한 종합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속유산의 보존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발제한 이동주 백제고도문화재단 고도유산부장은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과 역할을 제언했다.

그에 따르면 ‘산사 통합관리단’은 중앙정부기관인 문화재청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단체와 종단 · 7개 사찰 · 신도회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으로 이뤄진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국은 기획홍보팀 · 학술연구팀 · 통합모니터링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산사 통합관리단’ 역할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통합 모니터링과 유네스코 정기보고서 작성 △역사 · 문화 ·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보존 관리 역량 강화 △홍보 및 교류 사업 추진 △심화연구와 교육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홍보와 연구 분야에 대해 이동주 부장은 “전문기관과 함께 경쟁력 높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심화연구를 위한 학술논문 공모와 학술총서 발간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혜은 동국대 석좌교수 역시 ‘산사 세계유산 등재 의의’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등재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보존 · 관리하기 위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사 통합관리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혜숙 교수는 “기존의 등재추진위를 산사 통합관리으로 전환해서 7개 사찰을 통합관리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전문가 및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南北 공통 역사… 교류 지원 노력”

조명균 장관, 26일 BTN붓다회포럼서 강조

“불교는 유구한 한반도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상호 소통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서 BTN붓다회가 개최한 제1회 포럼 기조강연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남북평화시대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서 조명균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 진단과 정부 통일 정책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 ·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비핵화와 경제발전이라는 ‘평화는 경제’라는 확고한 정책적 명제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위기가 많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 관계가 있어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며 “강한 국방력을 확보한 평화도 있지만 경제적 관계와 이를 통한 외교 협상을 통한 평화도 생각해야 한다. ‘평화-경제’라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명균 장관은 “북핵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교류는 민족 동질성 회복 방면에서도 중요하며, 특히 종교적 교류도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 조명균 장관은 남북 간 불교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예로 든 조명균 장관은 “불교는 한국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크다. 이는 남북 교류와 소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찰 복원이나 자비 나눔 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대북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BTN회장이자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원택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붓다화포럼 좌장이자 국회 정각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됐던 승탑 부재 · 석불 돌아왔다

문화재청, 울산 신흥사 승탑 부재 · 상천리 석불 회수

도난돼 행방이 묘연했던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이 돌아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청 산하 사범단속반이 2000년 10월 도난당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1701년 제작)와 2013년 1월 도난당한 창원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조선 시대) 등 석조 불교문화재 2점을 11월 27일 오전에 회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들은 본래 울산시 신흥사와 창원시 상천리 폐사지에 있다가 도난되었는데, 이후 개인자택 등지에서 은닉되고 있다가 적발됐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는 도난문화재를 불법으로 취득 후 보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친 끝에 이번에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흥사 승탑부재는 사각의 석재에 ‘康熙四十辛▫愚堂大師▫▫巳三月日’(강희사십신▫우당대사▫▫사삼월일)로 확인된 명문이 오목새김(음각)되어 있다. 특히, ‘▫愚堂大師’(▫우당대사)라는 명문을 통해 청나라 강희제 제위 40년인 1701년에 조성된 승탑인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회수한 울산 신흥사 승탑부재(사진 왼쪽)와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석불의 경우 두상이 없었지만 은닉자가 불두를 조성해 접합해놨다.

2000 · 2013년 각각 도난돼 개인 자택 등 은닉해 보관 사범단속반 지속 수사 펼쳐

사각의 석재는 조선 시대 일반적인 종형 승탑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어 특이한 사례로, 경남지역 불교 유적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석재와 연관성이 있는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승탑부재에는 연꽃을 돋을새김(양각)한 면석이 있는데, 울산 신흥사의 승탑석재와 동일한 문양이다.

이 승탑부재는 현재 비지정문화재이나, 울산 · 경남 지역의 조선후기 승탑과 비교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기념비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주변 지역 승탑과의 시기적, 지역적인 유사성을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후기 석조물의 양식을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창원시 상천리 석조여래좌상의 경우 불두(佛頭, 부처의 머리)를 확인할 수 없지만 통견식(通肩式, 양쪽 어깨를 모두 덮는 형식)의 대의를 입고 가부좌한 모습을 볼 때 여래상으로 판단된다. 여래상은 둔중한 체구에 불신의 양감이 적고 결가부좌한 양발이 모두 드러나 있으며, 옷자락을 잡은 수인의 형태 등에서 조선 시대 지방에서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여래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석조여래좌상은 국립 창원대 박물관에서 보관 · 관리되고 있으며, 승탑부재의 경우 울산시와 신흥사 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 · 인계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도난된 문화재들을 조속히 회수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제자리에서 보존과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11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18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 및 세미나는 날로 심화되는 스마트폰 · 인터넷 과의존 문제를 불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불교계 기관 및 단체의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 내 관련 사업의 조직화 ·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상됐다.

출범식에는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오용수 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 한국가톨릭문화원장 김민수 신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한국중독심리학회장 조현섭 교수가 참석했다.

불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장 가섭 스님은 “이번 문화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스마트 기기 중독성을 알리고 의식전환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출범 소감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